세계 농구는 지금 '2대2 플레이 시대'



KCC 이정현



원주 DB 김태술

'2대2' 국내 1인자 이정현 "태술이 형에게 배웠어요"

이정현 "KGC시절 형이 노하우 전수"

'2대2 플레이'는 전 세계 농구의 대세다. 득점력과 좋은 패스 능력을 갖춘 볼 핸들러, 좋은 스크린에 능한 빅맨이 있다면 상대 수비를 가장 손쉽게 흔들 수 있는 공격법이다. 상대 수비 대응에 따라 2대2 플레이에 나서지 않는 3명의 활용법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 제임스 하든(휴스턴 로케츠), 루카 돈치치(댈러스 매버릭스) 등 미국프로농구(NBA)를 주름잡는 스타들은 모두 2대2 플레이에 능하다.

국내에서는 전주 KCC의 이정현(33)이 최고의 2대2 플레이어로 손꼽힌다. 기본적으로 득점력을 갖췄고 패스 센스가 좋아 볼 없이 움직이는 팀 동료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 찬스를 만든다. 자타공인 KBL 최고의 선수다.

이정현이 처음부터 2대2 플레이를 잘한 것은 아니다. 프로 데뷔(2009~2010시즌) 때에는 2대2 플레이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가 2대2 플레이를 익히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수는 원주 DB의 가드 김태술(36)이다. 둘은 2011~2012시즌부터 2013~2014시즌까지 안양 KGC의 주축 선수로 함께 뛴 바 있다.

이정현은 7일 "그 당시 (김)태술이 형은 나에게 '농구의 신' 같은 존재였다. 특히 2대2 플레이는 기가 막혔다.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됐다. 태술이 형도 자신의 요령을 잘 알려줬다"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김승기 감독(KGC)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WKBL 올스타전 네이버 패밀리석 판매

WKBL이 12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의 네이버 한정판 패밀리석 티켓 판매를 7일 시작했다. 총 22세트 한정판으로 구성된 네이버 패밀리석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구성원 수에 따라 3인, 4인, 5인 패키지로 선택할 수 있다. 패밀리석 패키지를 구매하면 올스타전 유니폼이 제공된다. 초등학생 자녀들은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22명)의 손을 잡고 입장한다.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전용 게이트로 입장이 가능하고, 경기 중에는 도미노피자에서 제공하는 피자와 음료 등의 먹거리도 제공된다. 티켓은 3인 기준 6만 원, 4인 기준 7만5000원, 5인 기준 9만 원이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1위 KB스타즈 안덕수 감독·2위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 대권 위해 휴식기 중요성 강조

"박지수 퇴장 대비" vs "외인들 컨디션 점검"

-KB스타즈 안덕수 감독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

안덕수 감독, 박지수의 대안 고심 강아정·최희진 투입때 전술 보완

위성우 감독 "외인들 경기력 점검" 지친 선수들 재충전…재도약 다짐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는 팀당 17~18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있다. 8일 예정된 부천 KEB하나은행과 부산 BNK 썸과의 경기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감한다.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처럼 청주 KB스타즈와 아산 우리은행이 선두권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KB스타즈가 13승5패로 한 경기를 덜 치른 우리은행(12승5패)에 0.5경기차로 앞선 1위로 전반기 레이스를 마쳤다. 지난 시즌에도 두 팀은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했고, KB스타즈가 1승을 더 챙겨 타이틀을 가져가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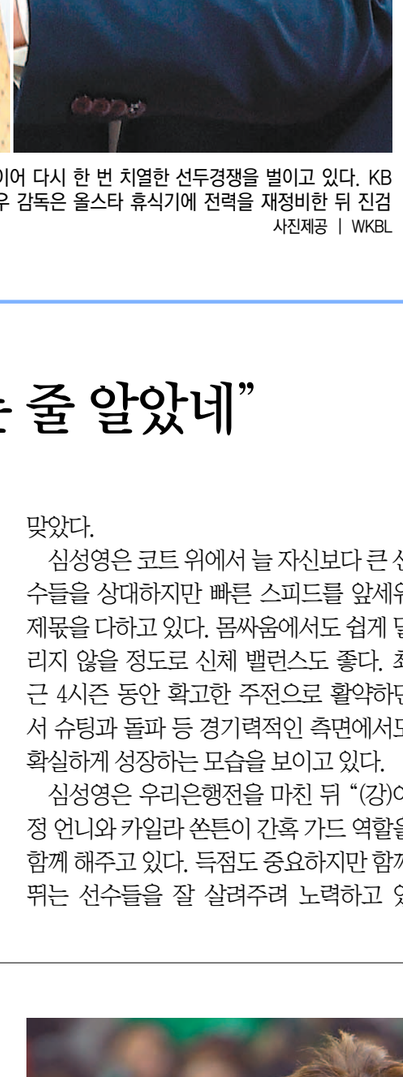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은 3위권 팀들에게 5경기 이상을 앞서 큰 이변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정규리그 타이틀을 놓고 맞대결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KB스타즈와 우리은행 사령탑은 올스타 휴식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B스타즈 안덕수 감독(46)은 "박지수가 부상으로 6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전반기 성적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 하지만 올스타 휴식기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수가 파울 트러블 등으로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 또한 강아정과 최희진 등 2명의 슈터를 동시에 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해 후반기에 더 달려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근 시즌 첫 3연패로 전반기 내내 이어온 1위 자리를 KB스타즈에 내준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49)은 "최근 들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선수 르샨다 그레이도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팀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스타 휴식기를 갖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선수들의 재충전과 함께 팀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잘 준비하겠다"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KB스타즈는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합 6연패를 달성한 우리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린 주인공이다. 이번 시즌 KB스타즈는 '수성'을, 우리은행은 '탈환'을 노리고 있다. '투톱' 체제를 갖춘 두 팀이 올스타전(12일) 이후 15일부터 시작될 후반기 레이스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나갈지 주목된다.





청주 KB스타즈와 아산 우리은행이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 번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왼쪽 사진)과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올스타 휴식기에 전력을 재정비한 뒤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B 가드 심성영 "심장이 막 뛰어 죽는 줄 알았네"

우리은행전 19점 1위 탈환 선봉장 많은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 긴장도

청주 KB스타즈 포인트 가드 심성영(28·165cm)은 7일까지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18경기에 출전해 평균 9.67점·3.3어시스트·2.1리바운드·1.4스틸 등으로 고르게 활약하며 팀의 선두 질주를 돕고 있다. 시즌 득점과 어시스트는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빼어난 수치다. 특히 6일 아산 우리은행과의 원정경기에서

심성영

는 3점슛 3개 포함 19점·6리바운드·2어시스트를 올려 팀 승리를 주도했다. 심성영의 분전으로 이번 시즌 들어 우리은행과의 4번째 맞대결 만에 첫 승을 챙긴 KB스타즈는 단독 선두에 나서며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았다.

심성영은 코트 위에서 늘 자신보다 큰 선수들을 상대하지만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제몫을 다하고 있다. 몸싸움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신체 밸런스도 좋다. 최근 4시즌 동안 확고한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슈팅과 돌파 등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성영은 우리은행전을 마친 뒤 "(강)아정 언니와 카일라 쏜튼이 간혹 가드 역할을 함께 해주고 있다. 득점도 중요하지만 함께 뛰는 선수들을 잘 살려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 외곽슛이 잘 들어갔는데 행운도 따라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내내 눈을 크게 뜨고 기자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집중한 심성영은 인터뷰를 마치고 개인 짐을 챙겨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막 뛰어 죽는 줄 알았네." 그는 "평소 기자회견장에 이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1·2위 맞대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랐다"며 그제야 옅은 미소를 보였다.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코트 위에서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절대 위축되는 모습이 없었던 심성영에게 인터뷰실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인 듯 했다.

최용석 기자

이상범 감독이 두경민 수비에 기대 거는 까닭

〈원주 DB〉

MVP 출신의 전역 당연히 반갑지만 무리한 공격땐 팀 플레이 해칠수도 동료들 수비 부담 줄이는 게 더 중요

원주 DB에 '최우수선수상(MVP)' 두경민(29)이 합류한다.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인 두경민은 8일 전역해 원 소속팀 DB의 팀 훈련에 합류한다. DB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DB는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16승13패를 기록하며 중위권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3라운드에서는 주축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인해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4라운드 들어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두경민의 합류는 희소식이다. 그는 10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두경민은 2017~2018시즌 47경기에 출전해 평균 16.45점을 기록, 팀의 정규리그 1위에 기여하며 정규리그 MVP를 수상한 경험이 있다.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DB 팬들은 두경민의 합류가 폭발력을 실어주리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작 DB를 이끌고 있는 이상범 감독(51)은 두경민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두지 않았다. 이 감독은 7일 "많은 분들이 (두)경민이의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꺼낸 뒤 "역대로 상무 제대 직후 팀에 합류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광재(2012년) 정도인데,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는 점점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무에서 경기를 뛴다고 하지만, 프로농구 수준은 다르다. 1년 반 가량의 공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경민이는 최근 D리그 경기를 많이 뛰지도 않았다. 경민이가 온다고 해서 우리 팀 공격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 감독은 두경민에게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DB는 윤호영(36·197cm), 김종규(29·207cm)·치나누 오누아쿠(24·206cm)가 지키는 골밑 수비는 리그 최강급인 반면, 외곽수비는 취약하다.

이 감독은 그는 "지금 앞선(가드) 자원들이 과부하가 온 상태다. 활동량이 좋은 경민이가 합류하면 다른 선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수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만약 경민이가 공격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팀을 해치는 플레이를 한다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원주 DB 두경민은 8일 제대해 팀에 합류한다. DB 이상범 감독은 공격보다 수비에서의 역할을 더 기대하고 있다. 군 입대 전 DB에서 활약하던 두경민. 사진제공 | KBL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